

## 구 소련지역의 민족분규와 러시아연방의 인근외교\*

문 명 식

### I. 머리말

독립국가연합(CIS)이 구성된 이후 구 소련지역에서 민족분규가 계속되어 왔다. 소련의 붕괴로 지금까지의 소규모의 지역적인 민족분규는 구소련의 전 지역으로 확산되는 추세이다. 몰도바 공화국 내의 드니에스트르 지역의 러시아인들의 분리 독립요구로 인한 몰도비아 군과의 무력충돌, 그루지아와 북오세치아 간의 충돌, 그루지아 정부군과 아프하스의 분리·독립주의자들과의 무력분쟁, 타지크 공화국에서의 회교원리주의자들이 러시아인에 대한 테러,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의 러시아인을 차별하는 새로운 시민법의 제정 등이 그 예이다. 민족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구 소련공화국에 산재해 있는 2천5백만 러시아인들은 그 동안 누려왔던 권리를 박탈당하고 탄압을 받는 소수민족으로 전락하여 오토가도 못하는 처치가 되었고 신변의 위협을 받고 있다. 일부만이 안전을 위해 러시아연방으로 이주해 오고 있다.

러시아의 보수정치세력들은 러시아연방 밖에 거주하는 러시아인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해 줄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엘친 정부에 촉구해 왔다. 그들은 구 소련 공화국 내의 러시아인에 대한 탄압이 지나칠 경우 관련 공화국에 대해 무력사용을 포함한 합법적인 제재를 가할 것을 주장해 왔다. 따라서, 지금까지 국내의 개혁에 전념하느라 대내·외의 민족문제에 소극적이었던 엘친은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더구나 1993년 12월 13일에 실시된 총선에서 극우민족주의

\*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러시아연구소 대우연구비의 지원을 받은 연구임.

정상을 내세우는 블라지미르 지리노프스끼이가 이끄는 러시아 자유민주당을 포함한 극우 민족주의 정치세력의 부상은 엘친으로 하여금 인접 공화국에 흠여져 있는 러시아인들을 보호하고 러시아연방의 국익을 위한 외교정책으로 진화하도록 압박하고 있다.

러시아연방 내의 소수 민족들은 구소련의 축소판처럼 자치권·자결권의 증대와 분리독립을 위한 운동을 벌여 왔다. 민족문제는 러시아의 보혁대결로 인한 정치적·경제적 위기를 틈타 더욱 확대되어 왔다. 모스크바에서의 보혁대결과 행정부와 입법부간의 권력투쟁으로 인한 정치혼란과 중앙정부의 풍세가 악화됨을 틈타, 공화국·지방정부의 지도자들은 분리·독립을 선언했고 그들의 권한확대를 시도해 왔다. 체첸-잉구슈 공화국과 타타르스탄 공화국의 분리독립운동은 러시아연방의 통합을 위협하고 있으며 다른 공화국들과 지방정부들도 자기 지역에 있는 천연자원에 대한 통제권 등 경제적 자치권을 연방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러시아연방 내의 소수민족 자치공화국의 분리독립운동과 지방정부의 자치·자결권의 요구를 완화시킬 대책이 강구되지 않으면 러시아연방은 해체될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

구 소련공화국에 산재해 있는 2천5백만 러시아인들의 문제와 러시아연방 내의 소수민족들의 분리독립운동, 그리고 지방정부의 자결·자치권의 확대에 대한 요구 등은 CIS구성공화국들과 러시아와의 관계 및 러시아연방의 존립 및 안정에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이 논문의 목적은 구 소련지역의 민족분규와 그곳의 러시아인들의 당면한 문제를 분석하고 인접 공화국에 흠여져 있는 러시아인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러시아 정부의 인근외교<sup>1)</sup>와 대책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보다 나은 대안을 모색해 보는 데 있다.

구 소련지역과 러시아연방내의 민족문제 해결의 관건은 새로운 민족주의 개념을 정립하는 데 있다. 기존의 공통의 조상, 종교, 언어, 지역과 관련된 인종적 민족주의 개념은 오늘날 복잡하게 얽혀 있는 구 소련지역의 민족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민족을 구분하는 이러한 기존의 기준을 뛰어 넘는 새로운 민족주의 개념의 정립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작금의 국제화와 개방화의 추세에 걸맞는, 현대의 산업사회가 공유하는 문화와 가치에 바탕을 둔 시민적 민족주의 개념을 개발하는 것이다.

1) 구 소련 구성 비러시아계 공화국을 인접외국이라 부르고 러시아 정부의 그곳에 대한 정책을 인근외교라 부른다.

## II. 구 소련의 각 공화국의 민족분규 현황

각 공화국의 민족분규의 원인은 공통점을 갖고 있다. 소연방의 붕괴 이후 각 공화국들이 주권독립국가를 설립한 후 그곳의 다수민족들이 공직을 독점하고 그들의 언어를 공식어로 공포하고 새로운 시민법이나 국적법을 선포하게 되자 그곳의 소수민족과 러시아인들은 여러 모로 불이익을 당하게 되었다. 공직과 직장에서 내몰리고, 주택을 빼앗기고 테러를 당하는 경우도 있었다. 갑작스런 정치체제의 변경으로 인한 정치혼란과 경제난, 주택난에 대한 다수 민족의 불만을 소수민족에 대한 차별로 해소하려는 상황은 러시아인을 포함한 소수민족의 입장을 더욱 더 어렵게 만들었다. 특히 러시아인들은 구 소련시절에 각 공화국의 공직과 고압기술인력의 다수를 차지하며 지배층에 있었던 그들은 갑작스런 그들의 소수민족으로의 전락을 심리적·경제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다.

그들은 심리적·경제적 신분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장래에 있을 지도 모를 신변 위협에 대비할 자구책을 강구하기 시작했다. 그 방법으로 일부는 러시아연방으로 이주하는 길을 택했지만, 러시아연방이 정치적·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금 러시아로의 이주가 그들의 안정된 미래의 삶을 보장해 줄 수가 없으며 또한 오랫동안 기반을 닦고 살아 온 곳을 떠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래서 많은 러시아인들은 그들의 이익을 보호해 주도록 러시아 정부가 외교적 압력을 행사해 줄 것을 요청하거나, 직접 자위 또는 자치 단체를 구성해 주권독립국의 차별에 내항하거나 분리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무장투쟁을 벌이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다.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은 구 소련 시절부터 구 소련의 국경수비나 방위를 목적으로 주둔해 온 러시아 군 부대들이 소련이 해체된 이후에도 그곳에 주둔하면서 러시아인들의 무력투쟁을 방조하거나 무기를 대주는 등 음모로 양으로 현지의 러시아인들을 돕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공통적인 현상을 염두에 두고 구 소련지역의 주권독립국들의 민족분규의 현황을 상세히 살펴보자.

### 1. 몰도바의 민족분규와 러시아인들<sup>2)</sup>

2) 이 주제에 관한 분석은 달리 표시가 없는 한 아래 문헌을 참조하였음: Vladimir Socor, "Dniester Ulcer," *RFE/RL Research Report*, vol. 2, no. 1 (January 1993); Vladimir Socor, "Russia's Fourteenth Army and the Insurgency in Eastern Moldova," *RFE/RL Research Report*.

주지하는 바와 같이 몰도바는 1939년 나치독일과 소련간의 비밀협정에 의해 구 소련이 합병할 때까지 '베샤라비아'로 불리는 루마니아의 일부였다. 1945 이차세계 대전 종전 이후에도 구 소련의 영토로 존속되어 왔다. 소련이 해체된 이후 몰도바와 러시아연방은 좋은 관계로 시작했다. 구 소련 말기에 엘친과 개혁세력은 몰도바의 독립을 지지했다. 러시아인은 몰도바 총인구의 13%를 차지한다. 드니에스트르 강 좌안의 러시아인들은 1991년 12월에 소련이 해체되기 직전에 몰도바가 루마니아와 합병될 때 예상되는 강요될 루마니아화를 이유로 드니에스트르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을 선포했다. 러시아 정부는 몰도바가 루마니아와 합병하거나 러시아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 드니에스트르 공화국을 지원했다. 1992년에 드니에스트르 공화국은 민병대 수준에서 출발하여 완전 부장한 군대를 창립해 그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러시아 14군에 의해 무기를 공급받고 훈련도 받았다.<sup>3)</sup> 1992년 3월 경에 그들은 드니에스트르 강 우안으로 건너가 그곳의 일부지역을 점령하기까지 했다. 한편 몰도바 정부는 군사적, 정치적, 심리적으로 준비없이 드니에스트르의 러시아인들의 분리독립에 직면해야만 했다. 몰도바 군과의 전투기간 동안에 러시아 14군은 주요 전투에 직접 개입했다.

드니에스트르 공화국의 러시아인들은 전체인구의 40%를 차지하는 토착 몰도바인과 우크라이나인의 문화를 억압하고 언어의 러시아화 정책을 다시 시작했다. 그들은 이미 부인된 몰도바 언어가 루마니아어와 다르다는 이론을 부활시켜 라틴 문자 대신에 러시아 알파베트의 사용을 강요했고, 많은 몰도바 학교를 폐지했으며, 현재의 몰도바 언어 신문과 라디오 방송을 폐쇄시키고 대신 러시아어 라디오와 TV 방송을 제공하고 있다.

몰도바의 드니에스트르 사태의 근본 원인은 구 소련이 해체되고 구성공화국인 몰도바가 분리되어 주권독립국이 된 것을 갑자기 소수민족으로 전락한 러시아계 주민들이 현실로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러시아와의 연대를 지속함으로써 자신들의 안위와 권익을 유지하려는 데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다 구 소련의 강대국 지위와 영향력의 부활을 러시아연방 외교정책의 최우선 과제의 하나로 주장하는 러시아연방 내의 애국·민족주의 세력 및 보수정치세력이 드니에스트르의 러시아계 주민을 지원하고 이들의 정책에 동조하는 현시에 주둔하는 상고들의 지지에 기인한다. 이들은 엘친 정부가 서방세계와의 불화를 염려하여 러시아계 주민의 생명과 권익 옹호에 소극적이라고 비난하면서 국내외 권력투쟁에 드니에스트르 사태를 이용했다.<sup>4)</sup>

3) *Itar-Tass*, May 19, 1992 ; *Izvestiia*, May 26, 1992.

실제로 옐친 정부는 반대세력의 압력으로 드니에스트르 사태에 적극 가담할 경우 과거 구 소련 시절의 제국주의적인 팽창외교의 부활이라는 오해를 유발해 서방측으로부터 신뢰를 상실하여 경제지원을 얻는 데 장애가 될 것을 염려해, 정적들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계 주민의 권익 옹호에 적극 나서지 못하고 현지에 주둔하는 러시아 14군의 러시아계 반군에 대한 무기 공급과 같은 지원을 묵인하는 데 한정하고 있었다.<sup>4)</sup> 따라서 드니에스트르 사태 해결의 관건은 현지의 러시아계 주민이 현실을 인정해 몰도바 공화국의 일원임을 인식하고 그러한 전제하에서 자신들의 권익을 보장받는 해결책을 모색하는 한편, 러시아연방내의 애국적·민족적·보수적 정치세력들도 그들의 러시아계 주민에 대한 노골적인 지원이 구 소련하에서 오랫동안 누적된 러시아인에 대한 피해의식을 자극하여 러시아연방과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고 또 다시 이러한 악영향은 다른 구 소련 구성공화국에 연속적으로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하여 드니에스트르의 러시아계 반군에 대한 지원을 자제하는 데 있다.

## 2. 크림리아 반도의 러시아인들<sup>5)</sup>

크림리아는 1954년에 러시아연방에서 우크라이나 공화국에 양도되었다. 크림리아 문제는 소련의 해체 이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연방 간의 정상적 관계 확립에 최대의 장애 가운데 하나가 되어 왔다. 흑해함대에 관한 분쟁을 포함한 여러 요인들이 그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러시아 최고회의는 크림리아 반도의 양도가 공산당 지도자들에 의해 결정되었기 때문에 불법이란 이유를 들어 1954년의 크림리아 양도 결정을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크림리아는 러시아인이 다수(전 인구의 68.4%)를 차지하는 지역이며 그곳의 세

4) 이러한 팽창주의적인 인권 외교정책은 1993년 10월에 강제로 해산되기 전 러시아 최고회의 다수의의석을 차지했던 시민동맹이라는 연합체를 구성했던 온건중도주의자들 뿐만 아니라 극우·민족주의자들과 공산주의자들의 지지를 받았다.

5) 옐친은 현지의 14군의 장교들이 러시아 정부의 지휘체계를 무시하고 드니에스트르 러시아계 주민들에게 통제되지 않은 무기를 지원하고 있음을 시인했다. 상세한 것을 위해서는 *Komsomolskaia pravda*, May 27, 1992을 참고.

6) 아래의 문헌들을 참조함: Roman Solchnyk, "The Crimean Imbroglia: Kiev and Simferopol," *RFE/RL Research Report*, vol. 1, no. 33 (August 21, 1992); idem, "Kiev and Moscow," *RFE/RL Research Report*, vol. 1, no. 40 (October 9, 1992); Ian Bremmer, "Ethnic Issues in Crimea," *RFE/RL Research Report*, vol. 2, no. 18 (April 30, 1993).

바스토플은 흑해함대의 기지이다. 많은 러시아인들이 오랫동안 러시아의 유기적인 부분의 하나였던 우크라이나가 외국이 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갖는다. 또한 많은 러시아인들은 우크라이나와 벨로루시의 독립은 일시적인 현상이며 그들이 언젠가는 러시아에 귀환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돈바스와 크림리아처럼 러시아인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의 관할권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크림리아의 러시아인들은 그 지역에 대한 통제를 위해 투쟁해 왔지만, 그들의 노력은 크림리아와의 영토적 통합을 유지하려는 우크라이나 정부, 크림리아에 자치지역을 건설하려는 타타르인, 그리고 그 지역의 러시아화를 염려하는 현지의 우크라이나인들의 반대에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크림리아에서의 인종, 민족분규의 가능성은 높아 가고 있다.

18세기 중엽 이후 3차에 걸친 터어키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크림리아는 러시아 제국에 합병되었다. 1944년에 스탈린이 크림리아의 타타르인들을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시킨 이후에 뒤이어 많은 러시아인들이 이주해 옴으로써 그 지역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게 된 연유이다. 이 때부터 크림리아는 사실상 러시아의 영토가 되었다. 1954년에 흐루시초프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연방 간의 우정의 징표로 크림리아를 우크라이나에 양도했다. 그 후에 우크라이나인들은 반대로 이주하기 시작했다.

크림리아의 타타르인들은 페레스트로이카가 실시될 때까지는 크림리아 인구의 무시할 수 있는 부분을 차지했다. 그 후 중앙아시아로부터 조금씩 이주해 오기 시작했으며, 우크라이나가 1991년 8월에 독립을 선언한 후에 크림리아로의 이주가 급증했다. 1992년 말 경에 약 2십1만명의 타타르인이 크림리아에 살고 있었다. 전 인구의 8%인 그들은 숙련된 직장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토지를 구입하는 데 큰 장애에 직면했다. 그 결과 집 없는 타타르인들은 폭력, 약탈, 방화가 빈번한 임시 천막촌에서 살아야만 했다. 이러한 환경속에서 크림리아 타타르와 러시아인 행정 담당자 간의 충돌이 있었다. 구 소연방 내무성 소속의 치안군에 의한 조직 폭력이 타타르에 대해서 행해졌다. 그런 상황은 소련이 붕괴될 때까지 계속되었다. 1989년 9월에 첫 폭력사태가 일어 났다. 1992년 10월 1일에 크라스노 라이 국 영농장의 600명이 현지 경찰관과 함께 해안 소도시인 알류슈타 외곽의 타타르 천막촌을 습격하여 20명에게 부상을 입히고 26명을 체포했다. 이런 뉴스들은 크림리아의 타타르 공동체에 충격을 가져다 주었다. 타타르의 지도자들은 체포된 사람들의 석방을 요구했지만 크림리아의 관리들은 그들의 요구를 무시했다. 그들은 지역의 의사당 건물 앞에서의 데모를 조직했다. 5천명의 타타르인들이 돌을 던지고 시위를 하면서 대치하게 되자 행정당국은 체포된 26명의 타타르인들을 석방하고 그들을

타타르 군중들에게 인도했다. 타타르의 의회인 Mejlis의 부의장 라파트 슈바리프는 그런 단속이 크림리아에 살고 있는 타타르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구 소련의 해체는 크림리아의 다수 인구인 러시아인들의 지배 또는 우위를 가져왔다. 우크라이나의 TV 방송은 정규적으로 전파방해를 받았다. 우크라이나 언어를 정부, 교육 및 직장에서의 공용어로 채택하려는 움직임은 강력히 지지되었다. 그런 자치구조하에서 크림리아의 타타르는 제일 먼저 위협을 받았다. 그러한 연유로 크림리아 타타르의 민족주의는 끼예프와의 자연적인 연대를 추구하여 크림리아의 우크라이나와의 영토통합을 지지했다. 그런 자연적인 연대가 형성될 수 있다는 타타르의 기대는 소수민족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끼예프의 언급에 의해 강화되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대통령 크라프추크는 Mejlis와 공식적인 접촉을 세우지도 않고, 러시아인과 크림리아의 타타르인들 사이에 힘의 불균형을 시정하려는 어떤 구체적인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다. 우크라이나에 살고 있는 러시아인들의 지지를 획득하고 러시아와의 관계를 개선함으로써 크림리아, 세바스토폴 및 흑해함대의 소유권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려는 목적이 크라프추크의 회동을 저지했다. 이것은 크림리아의 타타르인들이 다른 곳에서 정치적 지지를 찾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우크라이나의 집권세력으로부터 정치적 연대를 거부당한 크림리아의 타타르인들은 우크라이나 민족주의 운동 단체인 Rukh와의 연대를 추진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크림리아인들의 비타협성이 지역자치 조치를 부여함으로써 극복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정부는 크림리아에 경제적·문화적 자치를 포함한 구체적 권한을 부여했다. 현지의 러시아인들은 크림리아의 인종·민족관계에 대한 우크라이나 정책을 지지하지만 그들은 우크라이나의 통치에 결코 순응하지 않는다. 크림리아의 러시아인들은 우크라이나와의 관계를 언급할 때 우리라는 표현 대신 그들의 주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그들에게 크림리아의 슬라브 민족은 사실상 끼예프의 통치에 반대하는 데 있어서 단결된 러시아어를 말하는 단일 블록이다. 그러나, 심버러폴에 거주하는 우크라이나인을 대상으로 실시된 조사에 의하면 우크라이나인들은 여러 가지 이슈에 있어서 러시아인들과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그들은 학교 강의어로서 우크라이나어의 사용, 우크라이나의 자체적인 통화 발행, 군대 창설 등과 같은 일련의 우크라이나 정부의 정책에 과반수가 찬성을 표시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크림리아의 러시아인과 우크라이나인 사이의 정치적 분열은 그 지역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우크라이나인들과 타타르인들 간의 협조는 그 지역에서의 러시아인들의 지배에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우크라이나인들과 타타르

인들은 현재의 러시아인들의 권한을 제한시키는 데 공동의 관심을 가진다. 크림미아의 우크라이나인들은 이차세계대전 동안에 서부 우크라이나에서 강제로 이주당했다. 이러한 타타르인과 우크라이나인의 공통된 역사적 비애는 현재의 러시아인 통치에 대한 공통의 반감으로 전환될 수 있다.

흑해함대의 분할문제와 크림반도의 귀속문제에 관한 우크라이나 정부와 러시아 정부간의 갈등이 증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 정치지도자들간에 의견이 대립되어 있었다. 엘친과 코지레프와 같은 러시아 정부의 공식인사들은 크림미아 문제에 대해 크림미아의 주민들의 의사를 고려하기 위한 크림미아 자치 정부의 대표자들의 참여와 함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연방간, 즉 3자 간의 협상에 의해서 해결할 것을 촉구해 왔다. 러시아의 엘친 정부는 크림미아가 우크라이나의 영토 및 내부문제라는 전제하에 협상에 의해 문제를 해결하려 해 왔지만, 아직 원만한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극우 민족주의와 보수세력은 엘친과 코지레프가 러시아의 국익을 저버렸다고 비난하면서 크림미아는 결코 우크라이나의 영토가 될 수 없으며 러시아에 재합병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부통령이었던 루츠코이와 해체된 최고회의 의장 하스블라토프는 러시아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민족주의적 해결책을 주장했다. 즉 제정러시아 때부터 러시아의 영토였던 크림미아는 러시아연방에 합병되어야 하며 그곳의 러시아인들의 권익의 보장을 위해서는 군사력의 사용을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더구나 크림미아 내의 다수인 러시아인, 소수인 타타르인과 우크라이나인 간의 정치, 경제, 교육, 문화에 관한 쟁점들은 문제를 더욱 더 어렵게 만들었고, 우크라이나와의 협상에서 엘친 정부의 운신의 폭을 좁혔다. 러시아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공급되는 원유 및 가스의 양의 감축과 가격의 절상을 외교적 카드로 이용하면서 러시아에 유리한 쪽으로 해결하려고 우크라이나 정부에 압력을 가해 왔다.

최근의 일련의 사태들—크림미아 자치정부의 대표에 러시아와의 합병을 추진을 공약한 인물이 당선된 것과 그리고 1993년 12월 12일에 실시된 총선에서 극우 민족주의 정강을 내세운 자유민주당과 러시아공산당, 농민당을 비롯한 보수세력의 부상—은 우크라이나와의 크림미아 문제에 관한 협상에서 러시아정부의 입장을 강경으로 선회시켰다. 이러한 외부환경 변화의 배경하에서 크림미아 반도의 러시아인들의 러시아와의 합병을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그곳의 타타르인들과 우크라이나인들의 반발과 동시에 러시아 정부와 우크라이나 정부간의 갈등의 증대로 민족분규와 동시에 국가 간의 관계악화로까지 발전될 가능성이 있다.



### 3. 까프카스 지역의 민족분규<sup>7)</sup>

그루지아의 남오세치아는 러시아연방의 북오세치아와 그루지아, 러시아연방 간의 국경을 사이로 맞대고 있다. 남오세치아는 그루지아로부터 분리하여 북오세치아와 합병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것을 저지하려는 그루지아의 국가수비대와 무장투쟁을 벌이고 있고, 북오세치아는 남오세치아에 무기를 원조하면서 돕고 있다. 또한 그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러시아 군대는 남오세치아인들을 돕고 있으며 그들은 러시아 군부대의 무기고를 습격하여 무기와 탄약을 탈취하고 있다. 이것은 그루지아와 러시아연방간의 분쟁의 원인이 되었다.<sup>8)</sup>

또한 아프하스 자치공화국은 그루지아로부터 분리독립하여 러시아연방과 합병하려 하여 이를 저지하려는 그루지아의 정부군과 무장투쟁을 벌이고 있다. 러시아의 민족주의·보수주의 정치세력들은 아프하스의 독립을 적극 지원했다. 더구나 극우 민족주의자들과 까자흐인들은 의용군을 조직하여 그루지아군과의 전투에 참가했고 현지에 주둔하고 있는 러시아 군도 아프하스의 민병대에 무기를 지원했다.

이와 같이 그루지아의 민족분규에는 여러 당사자들, 즉 아프하스 당국, 러시아 정부, 러시아의 민족주의 성향의 정치인들, 현지의 러시아군, 그리고 그루지아 정부가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그루지아 대통령 세바르드나제는 아프하스 자치공화국과의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열린 대통령에게 도움을 청했다. 세바르드나제로부터 중재요청을 받은 러시아 정부는 양측 간의 휴전성립을 성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했다. 양측에게 휴전제외에 응하지 않을 경우 유류, 전력공급의 단축 같은 경제적 제재의 위협을 가했다.<sup>9)</sup> 아프하스 반군과 그루지아 군은 휴전중에 있지만 분리독립의 문제는 아직도 미해결로 남아있다.

7) Catherine Dale, "Turmoil in Abkhazia: Russian Responses," *RFE/RL Research Report*, vol. 2, no. 34 (August 27, 1993); Elizabeth Fuller, "Russia's Diplomatic Offensive in the Transcaucasus," *RFE/RL Research Report*, vol. 2, no. 39 (October 1, 1993).

8) 남오세치아와 그루지아 간의 분쟁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조: *Nezavisimaia gazeta*, October 29, 1993, p. 3. 잉구쉬 공화국과 북오세치아 간의 분쟁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조: *Izvestia*, November 2, 1993, p. 1.

9) *ITAR-TASS*, September 17, 1993.

#### 4. 발틱 삼국의 러시아인들<sup>10)</sup>

발틱 삼국은 구소련 구성공화국 중 반소 감정이 가장 깊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친서방적인 문화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구소련 구성공화국들과 구별된다. 발틱 삼국의 이러한 특성은 역사에서 유래한다. 발틱 삼국은 제정 러시아의 영토였다가 볼셰비키 혁명 이후 주권독립국이 되었으나 1939년 나치 독일과 소련의 비밀협정에 의해 소련군에 점령되어 소련의 영토의 일부로 병합되었다. 소련의 점령에 저항했던 발틱 삼국의 많은 시민들이 그들의 조국에서 강제 추방, 이주되거나 살해당했다. 이런 연유로 발틱 삼국인들의 반소 감정은 그들의 가슴 속 깊이 간직되어 왔다.

구 소련 시절 고르바초프의 개혁과 개방이 혼란을 야기하고 있을 때, 경제지원을 얻기 위하여 서방측과의 관계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소련이 무력사용을 자제할 것이라는 사실을 간파한 발틱 삼국의 민족주의적인 정치지도자들은 감히 소련 구성공화국 중 처음으로 분리독립을 선언했다. 리투아니아를 필두로 에스토니아 그리고 라트비아 순서대로 독립을 선언했다. 발틱 삼국을 필두로 구 소련의 다른 공화국들도 연달아 분리독립을 선언하게 되었다.

1991년 8월의 보수파 쿠데타 실패 이후 사실상의 주권독립국이 된 발틱 삼국들은 CIS에 가입을 거부하고 러시아로부터 거리를 멀리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 공식어로서의 러시아어 사용을 금하고 모든 분야에서 그들의 모국어 사용을 강화해 왔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민권법과 이민법을 제정하여 시민이 될 자격을 엄격히 함으로써 러시아계 주민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 이에 대하여 러시아 정부는 그러한 시민권법과 이민법은 그곳의 러시아인들을 차별하는 데 목표를 둔 인권을 위반하는 법이라고 항의하면서, 그곳의 러시아인들의 인권과 권익에 대한 보장 없이는 그곳으로부터의 러시아군 철수를 보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발틱 삼국의 시민권법과 이민법의 세부사항과 문제점을 살펴 보면, 삼국 중 러시아계 주민이 (전인구의 34%로) 가장 많은 라트비아가 가장 엄격한 시민권 취득법과 이민법을 제정했다.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그리고 리투아니아 순서대로 이지역의 러시아인들의 애로사항을 알아보자.

10) 다음의 문헌을 참조함: Richard J. Krickus, "Latvia's Russian Question," *RFE/RL Research Report*, vol. 2, no. 18 (April 30, 1993); Dzintra Bungis, Saulius Girmius, and Riina Kionka, "Citizenship Legislation in the Baltic States," *RFE/RL Research Report*, vol. 1, no. 50 (December 18, 1992).

### 에스토니아:

1992년 2월에 에스토니아는 새 시민법을 채택했다. 그 법에 의하면 1941년 6월 16일 당시 에스토니아 공화국 시민이었던 사람과 그 자손들은 인종에 상관없이 에스토니아 시민이 될 수 있다. 시민권 신청을 원하는 자는 1990년 3월 30일부터 2년 동안 에스토니아에 거주했어야 한다. 지원자는 일정한 수준의 에스토니아어 해독력을 입증해야 하고 국가, 법률 그리고 헌법에 충성을 맹세해야 한다. 구 소련의 치안·안보기관에 근무했던 자, 외국군대에 현재 복무하고 있는 자, 폭력범죄의 전과를 가진 자에게는 시민권 부여가 금지된다. 2년 거주 기간과 1년의 대기 기간은 1990년 3월 30일 이전에 시민권을 신청했던 사람들에게는 면제된다. 시민권이 없는 영주권자들은 지방자치 기관의 선거에 대한 투표할 권리를 갖지만, 시민권자만이 전국선거에 투표할 수 있고, 비시민권자는 공무원이나 기타 특수직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이러한 시민법과 이민법에서 일정한 수준의 에스토니아어 구사력의 요구와 구 소련의 치안, 안보기관과 외국군대에 봉사하고 있는 자에 대한 시민권 취득자격의 금지는 에스토니아 전체인구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러시아인들과 현지에 주둔하고 있는 러시아 병사들의 시민권 취득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sup>11)</sup> 러시아계 주민들은 오랫동안 공용어로 러시아어를 사용해 왔고 러시아어로 교육을 받아 왔기 때문에 에스토니아어에 서툰 러시아계 주민들이 시민권법상의 언어구사력 기준에 통과할 수 없다. 또한 많은 러시아계 주민중 상당수가 구 소련의 치안과 안보기관에 종사한 적이 있고 구 소련시절부터 주둔해 온 러시아 군인들이 에스토니아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에스토니아 정부는 새로 제정된 시민법과 이민법으로 러시아계 주민에게 시민권의 부여를 제한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표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에스토니아를 떠나 러시아로 이주하도록 압력을 행사할 의도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차별적인 시민권법 하에서 러시아계 주민들의 권익보장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러시아 정부는 에스토니아의 시민법이 러시아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국제여론에 호소했다. 국제여론은 에스토니아 뿐만 아니라 다른 발틱 국가들의 차별적인 시민권법 제정에 대해 비판적이었다.<sup>12)</sup> 뿐만 아니라 엘친

11) 에스토니아 전체인구의 60%는 에스토니아인이고 40%는 핀란드인, 우크라이나인, 그리고 벨로루시인을 포함한 비에스토니아인이다. 이중 핀란드인을 제외한 우크라이나인과 벨로루시인이 평소 에스토니아어를 사용하고 러시아문화 속에서 생활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러시아계 주민은 30%를 넘어 40%에 육박한다.

12) 발틱 삼국의 차별적인 시민권 법에 대한 국제적인 비난에 관해서는 다음의 문헌을

은 발틱 국가들의 러시아인을 차별하는 시민법이 수정되지 않을 경우 현지에 주둔하고 있는 러시아 군대의 철수를 유보할 것과 원유와 가스의 공급을 감축할 것을 천명하여 발틱 국가들에게 압력을 가하고 있다.

### 라트비아:

라트비아도 에스토니아와 비슷한 비라트비아인에게 불리한 시민권법을 채택하려 했다. 그 내용의 핵심을 살펴보면, 라트비아어 구사 능력을 입증해야 하고 다른 나라의 시민이 아니어야 하며, 과거 16년 이상 동안 라트비아 헌법을 준수해 왔고 공화국에 충성을 맹세해야 한다. 16년 동안의 거주기간과 언어 습득 요구로 많은 비라트비아인에게 시민권 부여가 거부될 것이다.<sup>143</sup> 다른 조항, 즉 라트비아 정부와 의회를 비합적으로 전복시키려는 기도를 했던 자들, 소련군대, 내무성과 KGB에 복무했던 사람, 그리고 소련의 공산당과 콤포소의 일원이었던 사람들은 시민권 부여가 거부될 것이라는 조항은 특히 러시아인들에게 불리하다.<sup>144</sup>

라트비아의 총인구 중 러시아어를 말하는 러시아계 인구는 문화적·정치적으로 러시아인들과 동일시하는 우크라이나인과 벨로루시인을 포함하여 45%에 이른다. 중앙아시아와 까프카스의 구 소련 공화국의 러시아인들과 달리 라트비아의 러시아인들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지는 않지만 정당한 권리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다. 라트비아는 1940년에 소련에 합병되었다. 스탈린의 이차세계대전 전후의 소수 민족 문화 및 언어 탄압정책은 라트비아의 민족, 언어, 문화를 말살할 정도로 위협적이었다. 스탈린은 다방면의 러시아화 정책을 통해 라트비아의 민족적 정체성을 파괴하려고 시도했고 라트비아인들을 소련의 다른 지역으로 추방하고 대신 러시아인들을 이주시켰다. 이차세계대전과 스탈린의 정책의 결과 라트비아는 전인구의 3분의 1(50만 내지 60만)을 사망, 이주, 추방으로 잃었다.<sup>145</sup>

참조: *The New York Times*, November 19, 1992; *The Thirtieth Report of the 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no. 6 (September 1992).

- 13) 라트비아 총인구 중 비라트비아인의 비율은 문화적·정치적으로 자신들을 러시아인과 동일시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인과 벨로루시인들을 포함하여 45%를 차지하며 러시아인의 비율은 라트비아 총인구의 34%이다.
- 14) 1992년 10월 29일에 열린 발틱삼국에서의 러시아 군대의 철수를 그 곳에 거주하는 침해받은 러시아인들의 인권 보장과 연계시킬 것이라는 대통령령을 공포한 바 있다. 상세한 것을 위해서 다음을 참조: *The Washington Post*, April 5, 1993.
- 15) 라트비아 인구 구성의 상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 The Report of the Statistics Committee, Institute of Philosophy and Sociology, Latvian Academy of Sciences, *The Ethnic Situation in Latvia Today* (Riga: Latvian Academy of Sciences, 1991), p. 4.

라트비아에 살고 있는 러시아인들은 4개의 집단으로 구별될 수 있다. 첫째는 동화된 러시아인들이다. 그들은 1939년 라트비아가 소련에 합병된 이후에 수세대에 걸쳐 라트비아에 살아 오면서 라트비아인과 결혼을 했고, 라트비아 언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으며, 라트비아의 독립을 지지했던 자들이다. 둘째 집단은 아직 라트비아 문화에 동화되지 않았지만 보다 나은 경제적 삶을 위해서 라트비아에 이주했던 러시아인들이 있는데,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사업을 일으켜 현재의 생활 수준을 유지했고 민족분규를 피하는 데 관심을 가진다. 그들이 라트비아 시민이 되려면 라트비아 언어를 배워야 할 것이다. 셋째 집단은 구소련의 여러 지방을 떠돌다가 라트비아가 독립했을 때 라트비아에 있었던 사람들이다. 이들은 러시아에도 라트비아에도 강한 연대를 갖고 있지 않다. 이들은 라트비아어를 배우지 않을 것이며 서방의 국경이 열리면 심중팔구 거기로 갈 것이다. 넷째 집단은 라트비아를 통치하기 위해 온 구소련 군대와 KGB와 다른 치안·안보기관의 종사자들, 그리고 라트비아에 살고 있는 4만명으로 추정되는 구 소련군의 제대군인들이다. 이들은 소련통치의 회복을 공공연히 언급하고 있다. 또 이들이 몰도바의 드니에스트르와 같은 자치공화국의 수립을 추진할 경우 현지에 주둔하고 있는 러시아 군대가 그들을 지원하지 않을 까하고 발틱 삼국의 주민들이 염려하는 집단이다.

구 소련시대에 대부분의 러시아인들은 특권적 지위를 즐겼다. 라트비아의 러시아인들은 그들 자신을 소수민족으로 느끼지 않는다. 소련체제를 혐오했던 사람들조차 소수민족으로서의 그들의 새로운 위치를 받아들이기는 심정적으로 매우 어려웠다. 차별적인 시민법에 대한 러시아계 주민들의 불만에 대하여, 라트비아인들은 과거에 러시아인들이 라트비아인들 이익의 희생위에 더 나은 주택, 교육, 고용 기회를 받았기 때문에 라트비아인들이 겪었던 잘못된 관행을 시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따라서 라트비아인들을 위한 affirmative action(오랫동안 차별받아 왔던 계층인 소수민족 및 여성의 고용, 고등교육기회를 증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항변했다.<sup>16)</sup>

라트비아의 러시아 인구의 약 15%가 라트비아를 떠날 것이라고 추정되었다. 발틱 뉴스 서비스에 의하면 1992년에 3만5천명이 라트비아를 떠났다. 16,116명이 러시아로 갔고, 7,012명이 벨로루시로, 그리고 6,295명이 우크라이나로 갔다. 얼마나 많은 비라트비아인들이 라트비아를 떠날 것인지 아무도 정확히 예견할 수 없지만, 중요한 기술을 가진 러시아인들이 떠날 경우 라트비아 경제는 타격을 입을 것이

16) Richard J. Krickus, "Latvia's Russian Question," *RFE/RL Research Report*, vol. 2, no. 18 (April 30, 1993), p. 31.

다. 라트비아가 현재 안고 있는 경제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전문·기술인력이 필요하다.

노동계급의 러시아인들은 라트비아에 남을 것 같다. 그러나 이런 집단은 정치적 선동에 취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온건한 라트비아인들과 러시아인들은 라트비아 정부가 평범한 러시아인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을 완화시켜 줄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으면 양 민족의 극단주의자들이 민족간의 긴장을 고조시켜 라트비아에 만연한 문제들의 해결을 막는 정치적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그들은 주장한다. 더구나 러시아인의 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을 경우 라트비아에 대한 제국주의적 야망을 갖고 있지도 않고 라트비아 이익을 해치려 하지도 않는 러시아내의 진보적인 개혁세력을 소외시킬 것이다. 그 결과는 문제를 더욱 더 악화시킬 것이다.

라트비아인들은 모스크바에 정치적 안정이 확보되면 발틱 삼국이 러시아에 재 합병 될 것을 두려워 한다. 이럴 경우에 현지에 주둔하고 있는 러시아 군대가 이용될 것을 염려한다. 1993년 12월 12일 총선에서 러시아 의회 제2당이 된 지리노프스끼이가 이끄는 극우민족주의 세력들의 러시아 국경선이 구소련 지역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라트비아인들의 안보에 대한 두려움을 한층 가중시켰다.<sup>17)</sup> 따라서 러시아 군대의 철수는 라트비아인들의 안보에 대한 두려움을 줄임으로써 러시아인에 대한 차별이나 반감의 감소를 유도할 것이다.

지금 현재 러시아인과 라트비아인 사이는 양 민족 간의 무력충돌을 염려하지 않을 정도로 그런 대로 좋다. 그러나 시민법의 차별조항을 완화하여 러시아계 전문인 집단의 이주를 예방하는 것, 그리고 러시아에 강제합병 당할 두려움을 불식시키기 위한 러시아 군대의 철수 등을 포함한 해결책이 강구되지 않을 경우, 양 민족간의 관계는 악화되어 양국간의 관계악화로 발전할 수도 있으며 이럴 경우 러시아인의 신변과 권익보호를 위한 러시아의 군사개입을 초래함으로써 발틱 지역 전체의 안보가 위협받을 수도 있다.

### 리투아니아:

리투아니아의 러시아인은 발틱 삼국 중 가장 적은 전체 인구의 9%를 차지한다.<sup>18)</sup>

17) 러시아내 극우 민족주의 세력의 부상에 따른 발틱 삼국의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발틱 삼국의 정치지도자들은 NATO에 의존하여 국가안보를 확보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

18) 리투아니아인이 전체 인구의 79.6%를, 그리고 폴란드인은 7%, 벨로러시아인은 1.7%, 우크라이나인은 1.2%, 다른 소수 민족은 0.3%를 차지한다. 리투아니아의 인

리투아니아의 시민법은 1991년 12월 11에 채택되었다. 일정한 수준의 리투아니아어 구사력과 리투아니아 헌법에 관한 지식을 입증해야 한다. 과거 10년 동안 리투아니아에 거주했어야 한다. 기타 국가전복, 마약범죄를 저지른 자에게는 시민권 부여가 거절된다. 리투아니아의 시민법에는 구 소련의 안보 및 치안기관, 그리고 소련군대에 종사한 경력을 가진 러시아계 주민에 대한 시민권 부여 제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발틱 삼국 중 가장 완화된 시민법을 갖고 있다. 이것은 러시아계 주민에 대한 월등히 많은 리투아니아인이 인구구성의 최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안도감이나 여유에서 연유하는 것 같다.

### 5. 중앙아시아의 민족분규와 러시아인<sup>19)</sup>

약 300백만 명의 슬라브인들이 중앙아시아에 살고 있다. 구소련 공화국들 가운데 중앙아시아의 공화국에서 반러시아 감정이 가장 약하다. 중앙아시아 공화국의 법은 슬라브 소수민족에 대해 상당히 관대하다. 중앙아시아 공화국의 모든 주민들은 새로운 국가의 시민이 되었다. 중앙아시아의 토착민의 언어가 공식 언어가 되었지만, 언어에 관한 법은 매우 민주적이다. 아직도 러시아어는 인종 및 민족간의 의사소통 언어로 사용되고 있다. 슬라브인들의 비율은 높지 않지만, 토착인보다 3 배나 많은 러시아인들이 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러시아어를 말하는 사람들이 기술 관료의 다수를 차지한다. 따라서 러시아어를 말하는 인구의 대량유출은 중앙아시아 경제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다. 중앙아시아의 집권층과 반대 정치세력들은 그러한 재난을 자극하지 않을 만큼의 상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토착민족의 분명한 호의에도 불구하고 조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생각하고 있지 않는 슬라브인을 발견하기 어렵다. 현지의 슬라브계 주민들과의 인터뷰에 의하면 과거에 우즈베키스탄과 라잔에 사는 것은 차이가 없었지만, 지금 그들은 점점 더 소외감을 느낀다고 말한다.<sup>20)</sup> 소외감은 신변의 두려움에 의해 더욱 심화되어 간다. 타지키스탄의 내전 등 일련의 소란은 중앙아시아의 러시아인들에게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 그 지역의 슬라브인들의 다수는 민주적 정치체제로의 전환이

구는 구 소련 지역으로부터 이주가 증가함에 따라 증대되고 있다. 다음 문헌을 참조: Dzintra Bungs, Saulius Girnius, and Riina Kionka, "Citizenship Legislation in the Baltic States," *RFE/RL Research Report*, vol. 1, no. 50 (December 18, 1992), p. 40.

19) 이 소제목 하의 분석은 다음을 참조함: *Nezavisimaia gazeta*, April 29, 1993, p. 3.

20) *Nezavisimaia gazeta*, April 29, p. 3.

중앙아시아에서는 불가능하며 현재의 통치에 대한 유일한 가능한 대안은 유혈 혼란이나 이슬람 폭재라고 생각한다.

구 소련의 서부지역과는 달리 러시아어를 말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큰 조직을 갖고 있지 않았다. 중앙아시아의 러시아어를 말하는 사람들을 위한 유일한 조직은 지난 1993년 2월에 러시아인들에 대한 습격 즉시 창조된 타지키스탄 이민사회이다. 이 조직의 주요 임무는 러시아어를 말하는 사람이 공화국을 떠나는 것을 도와 주는 것이었다.

러시아연방이민국의 자료에 의하면 정치 불안이 시작되기 전에 타지키스탄에 살았던 388,000 슬라브인들 중 3십만명이 공화국을 떠났다.<sup>21)</sup> 러시아인에 대한 적의가 극도의 상태에 있을 때 러시아인들은 그들의 아파트와 소지품을 버리고 아무런 짐가방도 없이 도망쳤다. 러시아어를 말하는 사람의 대부분이 이슬람교도들을 두려워하고 저주하고 이슬람-민주적 야당의 패배를 환영하지만, 신 집권층은 타지키스탄의 러시아어를 말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정적과 평화를 가져다 주지 못했다. 구 소련 공산당원이었던 정치 시도자들이 정권을 잡은 후 벌어진 정부군과 이슬람 원리주의자들로 구성된 반군과의 내란은 타지키스탄의 러시아계 주민들을 더욱 불안케 하고 있다.<sup>22)</sup> 이민사회의 부의장 유리오그네프에 의하면 “우리는 이미 공화국의 정치 안정화 가능성에 대한 희망을 잃었다. 오후 6시 이후에 도시는 죽은 듯하고 사람들은 밖에 나가기를 두려워 한다. 러시아어를 말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공화국을 떠났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이민 떠난 사람들은 그들이 원할지라도 그들의 아파트로 돌아올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은 여전히 아파트의 법적인 점유자이지만, 타지키스탄 정부는 비어있는 거주공간에 타지크인들을 정착시키고 기주허가를 내주기 시작했다. 우리는 타지크의 산업을 경영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러시아인들의 대량 유출은 곧 산업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 Tursun Zade 알루미늄 공장, Vakhsh Nitrogen 비료공장, 그리고 Nurek 수력발전소는 이미 폐쇄될 기로에 있고 경제난은 이슬람교도들이 시작한 것을 붙장

21) Sheila Marnie and Wendy Slater, "Russia's Refugees," *RFE/RL Research Report*, vol. 2, no. 37 (September 17, 1993), p. 47.

22) 게다가 모슬렘 원리주의에 입각한 이란을 모델로 한 정체체제의 건설을 목표로 하는 이들 반군들은 아프가니스탄의 국경지역에 근거지를 두고 국경을 넘나 들면서 정부군과 전투를 벌이고 있어 국가 간의 분쟁으로 변질 위험을 안고 있다. 뿐만 아니라 타지키스탄의 국경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러시아군의 정부군 지원은 사태를 더욱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타지키스탄의 내란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 Keith Martin, "Tajikistan: Civil War without End," *RFE/RL Research Report*, vol. 2, no. 33 (August 20, 1993).



낼 것이며 사실상 모든 슬라브인들은 떠날 것이다.”<sup>23)</sup>

러시아 이민국의 데이터에 의하면, 중앙아시아의 다른 국가에 거주하는 러시아계 주민의 이민률은 타지키스탄에 비해 매우 낮지만 꽤 많은 숫자이다. 국가별로 살펴본다면, 우즈베키스탄에 살고 있는 러시아인들의 5%(82,600명)가 1992년에 떠났다. 우즈베키스탄의 러시아인들은 타지키스탄의 혼란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우즈베키스탄의 러시아인들은 타지키스탄의 불안이 번질 것을 두려워 했다. 키르키스의 러시아인의 5%(45, 850명)가 공화국을 떠났다. 공화국 전체 인구의 30%가 러시아인들이다. 러시아인들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며 최저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계층이다. 키르키스인이 기존의 상황을 변화시키려는 시도는 대규모의 인종분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상황은 심각한 경제위기에 의해 더욱 더 악화될 것이다. 투르크메니스탄의 러시아인의 4%(16, 700명)가 이주했다.<sup>24)</sup> 투르크메니스탄은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안정된 국가이다. 러시아인들은 반란이나 불안의 두려움에 의해 사실상 억압받지 않는다. 슬라브인들은 식품이 더 풍부하고 생활이 러시아에서보다 더 평화롭다는 사실에 위안을 갖는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번창하는 국가에서도 슬라브인들은 소외감을 느낀다. 중앙아시아를 떠나 러시아에 정착하기로 결정한 이주자들은 직면하게 될 어려움에 주춤하고 있지만, 중앙아시아의 현재의 평화가 계속될지라도 러시아어를 말하는 러시아인을 포함한 슬라브인들의 대부분은 중앙아시아를 떠날 것이다.

위에 언급된 바와 같이 중앙아시아의 러시아계 주민들은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그들의 안위를 불안해 하고 있다. 현지의 정치 불안과 이슬람 민족주의자들의 그들에 대한 위협이나 차별정책은 그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그들은 안전을 찾아서 현지를 떠나 러시아로 이주하고 있다. 그러나 이주하고 있는 러시아인들의 대부분은 각국의 고급인력과 전문가들이어서 각 공화국이 계획하고 있는 경제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인력의 유출을 의미한다. 한편 이들은 경제혼란의 여파로 고급인력의 대량실적이 가져오는 사회문제 해결에 골머리를 안고 있는 러시아 정부에 부담이 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구 소련 지역의 민족분규를 각 공화국에 흩어져 있는 러시아인들과 독립주권국이 된 공화국 간의 갈등을 살펴보았다. 여러 가지 갈등의 원인들이 얽혀 있다. 소련의 해체 이후 변화된 정치, 사회, 경제환경에서 러시아계 주민들이 구 소련 시절에 누렸던 특권과 지위를 유지하려는 소망과 그들의 정체성

23) *Nezavisimaia gazeta*, April 29, p. 3.

24) Sheila Marnie and Wendy Slater, "Russia's Refugees," *RFE/RL Research Report*, vol. 2, no. 37 (September 17, 1993), p. 47.

상실이 가져다 준 심리적 충격, 구 소련 시절에 오랫동안 러시아인에 당한 상대적 박탈감과 굴욕을 새로운 환경하에서 보상받으려는 목적에서 공화국이 제정한 차별정책에 대한 러시아계 주민들의 반발, 그리고 그들의 생명과 복지를 보호해 주려는 현지에 주둔하고 있는 러시아 군대의 지원과 러시아연방내 정치세력들의 지원 등이 구 소련 지역의 민족분규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게다가 러시아를 포함한 구 소련 지역의 정치 불안과 경제난은 민족간의 갈등을 악화시키고 있다. 부족한 주택, 생필품과 제한된 직장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이민족인 러시아인들을 배제하려는 경향이 심화되었고 이러한 부족한 재화와 직장을 공정하게 합리적으로 배분할 정통성을 가진 정치권력의 부재는 민족간의 갈등 조정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구 소련 지역의 민족갈등의 해결책에 대해 러시아의 정치세력들은 각기 다른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제 러시아의 각 정파들의 민족정책을 살펴보자.

### III. 러시아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러시아연방의 인근 외교

2천5백만 러시아인들이 러시아연방 밖의 구 소련 구성공화국에 흩어져 살고 있다. 그들은 소연방의 붕괴와 함께 주권독립국가의 소수민족으로 전락했다. 그들의 대부분은 그들의 조국을 러시아나 그들이 거주하는 민족공화국이 아니라 구 소련이라고 생각해 왔다. 그들의 절반 이상이 소연방 구성공화국에서 태어나서 자랐지만, 민족언어에 능통한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 예를 들면 카자흐스탄의 러시아인의 1%만이 카자흐 언어를 알고 있다. 리투아니아, 아르메니아, 우크라이나의 러시아인의 3분의 1만이 민족언어에 능통하다. 주권독립국가에서 민족어를 공식어로 공표했지만, 러시아인들은 그것에 준비되어 있지 않다.<sup>25)</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발틱 삼국 공화국에서는 자국의 공식어 구사력과 일정기간의 거주를 시민권 취득의 자격조건으로 하는 법률이 만들어졌다. 이러한 시민법 하에서 그 곳의 러시아인들은 시민권을 가질 수 없게 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고 직장과 사회복지혜택 등에서 정치적, 경제적 권리를 제한받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불이익과 차별을 감수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25) *Rossiiskaia gazeta*, October 21, 1992, p. 7.

그러나 러시아인들은 각 주권독립국가의 도시에 밀집해 있으며 산업에 종사하는 엔지니어와 기술인력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러시아인들에 대한 토착민족들의 테러와 약제는 러시아연방과 주권독립국이 된 구소련 공화국들과의 긴장을 증폭시키고 있다. 따라서 러시아연방은 주권독립국에 거주하는 러시아인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개입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러시아의 각 정파들은 구 소련 지역의 러시아인의 안위와 권익보호에 관하여 각기 다른 해결책을 제시한다. 그들의 구 소련 구성공화국에 대한 정책은 그들의 소련의 해체에 대한 인식, CIS내의 러시아의 역할, 그리고 CIS의 미래의 발전방향에 대한 견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소위 대서양주의자들은 구 소련방의 붕괴가 불가피했으며 그것이 러시아가 국외에 무함된다고 믿는다. 그들은 러시아의 현 상황을 과거의 기대 러시아의 해체가 아니라 새로운 러시아가 출현하는 과정으로 보고 미래의 인류발전에 러시아가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찾고 있다. 그들에 의하면 러시아 집권층의 중요한 임무는 새로운 지정학적 현실에 비추어 과거로부터 교훈을 얻어 제정러시아와 구소련에서 얻은 것과 버릴 것을 구분하면서 러시아의 새로운 위치를 성립하는 것이다. 그들은 러시아가 지정학적인 위치 때문에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교량적 역할을 수행하는 강대국으로 존속해야 한다는 민족주의자들의 주장을 비판한다.<sup>26)</sup>

민족주의자들의 팽창주의적·제국주의적 외교정책에 반하여 그들은 보편주의적 외교정책을 주장한다. 따라서 그들은 구 소련보다 축소된 러시아의 영토는 러시아가 민주국가로의 전환되는 가능성을 높여 준다고 주장한다. 그들에 의하면, 가장 위대한 애국심은 방대한 영토와 막대한 자원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저절로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다. 과거에 러시아는 새로운 영토를 얻는 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허비했다. 이제 이런 에너지는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쓰여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그들은 구소련 구성공화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그를 독립주권국가와의 평등한 관계와 조속한 형태의 CIS체제를 주장한다.<sup>27)</sup> 즉 CIS의 통합과 조성에 있어서 러시아의 지도적 역할을 감구하기보다는 대내적인 개혁과 일상의 실제적인

26) 급진 개혁주의자들의 친서방식 및 대서양주의적인 구소련 내의 인권외교정책에 관해서는 다음의 본문을 참조: Vera Russia, "Westernizers Continue to Challenge National Patriots," *RFE/RL Research Report*, vol. 1, no. 49 (December 11, 1992).

27) CIS체제의 발전방향에 관한 여러가지 견해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조: John Lough, "Defining Russia's Relations with Neighboring States," *RFE/RL Research Report*, vol. 1, no. 20 (May 14, 1993).

문제에 전념할 것을 러시아 정부의 지도자들에게 주문했었다. 공화국내의 소수민족의 자치와 자결권을 존중한다. 따라서 구 소련공화국내의 민족분규와 그 곳의 러시아계 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러시아의 군사개입의 자제와 평화적 해결을 촉구했다. 다시 말하면, 러시아는 구 소련공화국과의 관계를 가급적 줄이고 내부분쟁에 전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러시아가 세국주의적인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러시아는 인접 공화국에 제한된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인접국가내의 러시아계 주민들 및 특정 정치적 집단과 정치적 유대를 보여줘서는 안된다. 그곳의 어떤 분쟁에도 개입해서 안되고 인접국가에 압력을 가하기 위해 군사적 행동이나 경제적 제재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대신 그들은 구소련 지역의 분쟁해결의 국제화를 추진하여 UN이나 CSCE와 같은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구소련 지역의 해결책을 강구했다.

이러한 대서양주의적인 인권의외교정책은 엘친의 전·현직 각료들, 즉 외무장관 코지레프, 가이다르 전 제1부총리, 부르불라스 전 부총리 및 진보적·자유주의적인 지식인들에 의해 주창되었다. 이들은 보수적 정치성향의 민족·애국주의자들로부터 러시아 국익과 러시아계 주민들의 권익보호를 저버렸을 뿐만 아니라 서방국가들의 이익에 일방적으로 기여했다고 비난을 받았다. 이러한 비난에 대해 대서양주의자들은 보수민족주의자들의 강력한 CIS체제의 옹호와 CIS내의 러시아계 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군사개입은 구 소련의 세국주의의 부활을 도모한다는 오해를 불러 일으켜 서방과의 관계악화를 초래하고 경제지인 등에서 불이익을 가져옴으로써 국익을 해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나중에 보수민족주의 세력의 비판을 수용하여 러시아 밖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정책으로 서서히 변화해 왔다. 엘친 정부는 크리미아 반도와 흑해함대에 관한 우크라이나와의 분쟁에서 민족주의자들의 입장을 지지했다.

민족·애국주의자들은 공통적으로 대서양주의자들의 친서방 외교정책과 UN, CSCE와 같은 국제기구가 구소련 지역의 민족분규 및 분쟁에 개입하는 것을 반대하고, 인접외국의 러시아계 주민의 안위와 권익보호를 위한 군사개입을 포함한 평화화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러시아의 적극적인 개입을 수장한다. 그러나 외교정책의 범위와 방향의 차이에 따라 고립주의자들과 세국주의자들로 구분된다. 고립주의자들은 유럽과 동맹을 맺을 경우 러시아인들은 큰 열등감을 갖게 될 것이고 구 소련의 주권독립국가와 인대하는 경우에는 세국주의라는 비난을 감수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러시아 정부는 외교활동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국내문제 해결에 전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대서양주의자들의 친서방정책과 서방국가와의 정치적 유대의 형성 및 유라시아주의자들의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연방 수립을 반대한다.

슬라브 민족 만으로 구성된 연방의 창립을 주창한다.<sup>28)</sup> 일단, 극단적인 고립정책을 주창하는 민족주의자들은 러시아연방내의 소수민족을 배제한 순수 러시아인으로만 구성된 연방의 창립을 주장한다.

팽창주의적·제국주의적 정책을 주장하는 민족·애국주의자들은 구소련의 붕괴를 민족적 자존심의 손상으로, 구 소련공화국에서의 러시아 민족의 탄압을 굴욕으로 여긴다. 그들은 러시아의 과거의 위대함을 강조하고 러시아는 강대국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그들은 완전히 달라진 정치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구 소련 지역에 소연방과 같은 중앙집권적인 연방을 재창립할 희망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다. 따라서 그들은 새로운 연방이 창립될 때까지 존속하는 과도기적 체제로서 강력한 통제 및 조정권을 가진 CIS체제를 선호한다. 그들은 러시아의 현재상황에 대해서 비판적이지만, 러시아의 미래에 대해서 낙관적이다. 그들은 러시아연방을 포함한 구소련의 시민 다수가 그들 자신을 하나의 공동체에 속한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본다. 그들은 20세기 초 러시아제국이 해체되었다가 블세비키에 의해 통합된 사실을 지적한다.<sup>29)</sup>

이러한 제국주의적 대외정책을 주장하는 민족주의자들이 1993년 10월에 강제해산된 최고회의의 보수민족주의 세력의 대부분을 차지했었다. 트라브킨에 의해 이끌어지는 러시아 민주당, 루츠코이에 의해 이끌어지는 자유러시아 인민당, 러시아 청년동맹, 그리고 볼스키에 의해 이끌어지는 러시아 산업가-기업가동맹이 연합하여 만든 중도온건 정치노선을 표방하는 시민동맹이 민족주의적 제국주의적인 대외정책을 주창했다. 이 시민동맹의 민족주의자들은 러시아 밖에 거주하는 러시아인들의 권리, 복지와 러시아의 국익을 수호하는 데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 또한 시민동맹의 지도자들은 러시아인들에 대한 차별이나 압제가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지나칠 때 러시아는 관련국을 제재하기 위한 군사적 행동을 포함한 모든 합법적인 수단을 사용할 당연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러시아연방의 영토적 통합을 붕괴시키는 정책은 "러시아 시민들에게 중대한 범죄행위이며 구 소련의 영토는 러시아의 특별하고 중대한 이익권이다"고 선언할 정도로 민족주의적이고 제국주의적인 정책을 제시했다.<sup>30)</sup>

28) 구 소련 말기에 솔체니친은 소련을 해체하고 슬라브민족 만으로 구성된 새로운 연방창립을 주창한 바 있다. 다음을 참조: Aleksandr Sozhenitsyn, *Rebuilding Russia: Reflections and Tentative Proposals*, tr. by Alexis Klimoff (New York: Farrar, Straus and Girous, Inc., 1991).

29) *Rossiiskaia gazeta*, August 4, 1992, p. 7; *Izvestiia*, August 7, 1992, p. 6.

30) *Komsomolskaia pravda*, October 21, 1993, p. 1.

유라시아주의자들은 독특한 지정학적인 위치 때문에 러시아는 유라시아 국가로 존속해야 하며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교량역할의 수행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한다.<sup>31)</sup> 스탈타노프 같은 사람은 현재의 러시아의 위기는 구소련 지역에 유라시아 연방(Eurasia Union)을 창립함으로써 극복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전 엘친 정치담당 보좌관 세르게이 스탄게비치도 유라시아적인 외교노선을 제기하고 안보적인 이유로 중앙아시아의 국가들과의 외교강화를 촉구했다. 그는 러시아의 남부국경지역에 출현하는 신생 독립국가들은 군사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지역으로서 러시아 안보를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러시아 외교정책은 서방국가보다는 구소련 공화국과의 관계를 개발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족주의자들처럼 유라시아주의자들도 비러시아 지역에 살고 있는 러시아계 주민들의 안전과 권익보호를 위해 러시아 정부의 적극적 개입정책과 통합성이 높은 CIS체제를 선호한다. 그러나 민족주의자들과 달리 유라시아주의자들은 구 소련 연방의 재건의 불가능함을 인식하고 반서방적인 대외정책을 주장하지 않는다. 그들은 대서양주의자들의 서방에 치우친 외교정책을 수정하여 서방과의 평화공존과 협력관계의 유지를 계속하면서 인도와 중동의 구소련의 우방이었던 국가들 뿐만 아니라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태평양 국가와의 신린관계의 증진을 주장한다. 바꾸어 말하면, 유라시아주의자들은 구소련의 비러시아 지역의 민족분규와 러시아계 주민에 대한 정책에 있어서는 민족주의자들과 궤를 같이 하지만, 그 외의 대외정책의 분야에서는 민족주의자들 및 대서양주의자들과 의견을 달리한다. 유라시아주의자들의 견해가 민족주의자들의 고립주의적인 또는 제국주의적인 대외정책이 초래하는 극단성, 그리고 러시아 집권층의 초기의 친서방 외교정책의 구도내에서의 한정된 인접외국의 민족분규와 러시아계 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정책의 문제점을 보완해 주는 대안으로 제기될 수 있을 것 같다. 실제로 유라시아적인 인접외국 정책 및 민족정책이 세를 얻고 있다.

집권초기부터 최근까지 엘친은 그의 지지세력의 고립주의적인 외교정책을 받아들여 친서방적이고 구 소련 공화국에 대한 제한된 외교정책을 펼쳤고 그 곳에 거주하는 러시아인들의 문제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해 왔다. 엘친은 러시아 민족주의의 대두가 시장경제로의 전환과 서구민주주의로의 개혁을 방해할 것이기 때문에 민족주의를 억제하려고 애써 왔다. 그러나 보수진영의 러시아 국익에 대한 민족주의적이고 제국주의적인 해석과 비판의 일부분을 수용하여 민족주의적인 입장

31) 러시아의 유라시아적인 지정학적인 특징에 관해서는 다음 문헌을 참조: Mark Bassin, "Russia between Europe and Asia: The Ideological Construction of Geographical Space," *Slavic Review*, vol. 50, no. 1 (Spring 1991), pp. 1-17.

이 가미된 고립주의 정책으로 신뢰하여 구소련 공화국과 그곳의 러시아인 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내치하기 시작했다. 엘친의 정책을 뒷받침했던 외무장관 코시레프의 친서방적이고 구 소련 공화국과의 관계에 소극적인 외교정책은 민족주의적인 고립주의자들과 민족주의적인 제국주의자들로부터 비판받고 수정되어 CIS의 독립공화국들과의 관계증진에 노력하기 시작했다.<sup>32)</sup> 인접공화국에 흩어져 있는 러시아인들이 탄압을 피해 러시아로 불러 올 경우 이미 악화되어 있는 러시아 경제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 정책변화에 영향을 끼친 것 같다.

위에 논의된 구 소련의 비러시아 지역의 민족분류 및 러시아계 주민의 안위와 권익보호를 위한 정책은 각 정치세력의 외교정책의 구도내에서 고려되고 있다. 대외정책 범주 내의 지역외교정책으로서 인접외교로 표현되고 있다. 각 정파들은 권력투쟁과 관련된 정책대결의 일환으로 구소련 지역의 소수민족으로 선략한 러시아계 주민들의 분체를 다루고 있다. 또한 정치·안보적 측면에 치우쳐서 구 소련 지역의 민족갈등을 다루고 있다. 오늘날과 같은 국제화·세계화 시대에 국가간 지역간 정치·경제적으로 통합되는 시대에 이러한 시각의 민족정책은 충분치 않다. 민족간의 갈등의 경제적인 요인을 고려한 새로운 민족의 개념이 필요하다. 지정학적 환경과 국제환경이 변화했음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 서대의 민족의 개념에 바탕을 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IV. 민족분류의 해결책으로서 새로운 민족주의 개념의 정립

민족주의는 오늘날 국제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하지만 잘못 이해된 문제 중의 하나이다. 근세기에 두 번 씩이나 민족주의는 세계전쟁의 원인이 되었다. 소련이 해체된 이후 구 소련의 구성공화국들과 러시아연방에서 인종 및 민족 간의 분규와 갈등이 증대되고 있다. 구 소련의 비러시아 지역의 신생독립 민족국가의 개념은 영토, 시민권, 정치적 원칙에 바탕을 둔 헌법적 국가가 아니라 언어, 혈통, 문화, 지역 등과 같은 공통유대에 바탕을 둔 민족적인 것이다. 이러한 전통적인 민족국가의 형태는 민족간의 분규나 갈등을 다루는 데 적절치 못하다. 따라서 새로

32) 친 서방외교와 제한된 인접외교 정책으로부터의 신뢰는 구 최고회의 보수세력들의 비판과 엘친실부가 기대했던 서방으로부터의 경제지원 확대의 미흡으로 인한 실망에서 기인한다. 이러한 정책변화의 방향은 1992년 12월 1일에 발표된 '러시아연방 외교정책 개념'에 상세히 표현되었다. *Nezavisimaja gazeta*, April 29, 1993을 참조.

은 민족개념의 정립이 요구된다.

인종은 같은 조상의 신화, 공동의 기억들, 문화 및 특정지역과의 관련을 가진 인간의 집단으로 정의를 내릴 수 있다. 여기서 문화는 의복, 음식, 음악, 공예품, 건축 뿐만 아니라 법, 관습, 제도, 언어와 종교를 포함하는 광의의 문화를 의미한다. 문화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 언어는 인종을 구분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인종과 민족은 일치할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즉 한 민족은 여러 인종과 종족으로 또는 한 인종으로 구성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민족은 언어·문화·조상·지역·신체적 특징·심리적 기질과 같은 공통의 유대를 중심으로 역사적으로 형성된 안정된 사람들의 집단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다.<sup>33)</sup> 민족을 형성하는 이러한 공통적 유대의 구성요소가 절대적 기준이나 가치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시대적 상황과 과학·문명 발달의 수준에 따라 민족을 구분하는 공통요소의 상대적 중요성이 달라진다. 과거 교통, 수송, 통신 시설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 인종간 또는 민족간의 접촉이 빈번하지 않았을 때는 문화적·민족적 특성이 유지될 수 있고 그러한 특성이 민족을 구별하는 주요한 기준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오늘 날과 같은 후기 산업사회와 기술·정보시대, 국제화·개방화 시대에 나라간의 관계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기술 등 다방면에 걸쳐서 이루어짐에 따라 문화적 특성이나 민족성의 독특함이 점점 희박해지고 있다. 또한 지역이라는 공동유대의 중요성도 약화되고 있다. 즉 해외로 이주한 일세대의 후세들이 세대를 거듭해 감에 따라 점점 더 언어적·문화적으로 동화되고 혼인으로 혼혈이 이루어짐으로써 민족을 구분하는 정체성의 기준으로서 언어와 문화의 역할은 무의미해진다. 따라서 지역간 경제적·문화적으로 통합되는 오늘 날의 국제화·세계화 시대에 적절한 민족을 구분하는 정체성이 새로 개발되어야 한다.

국가는 다인종·다민족 또는 한 인종과 한 민족으로 형성된다. 따라서 국가 공동체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집단을 지칭하는 국적은 인종적 또는 시민적 기준에 의해서 구분될 수 있다. 종족적 국적은 같은 문화와 조상을 가진 집단 내의 공유하는 정체성의 의식에 바탕을 둔다. 시민적인 민족 또는 국적집단의 구성원 자격은 일반적으로 언어, 문화, 또는 조상에 상관없이 특정한 국토내에서 태어났거나 영구히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되어 있다. 인종적 민족주의자들은 민족이나 국적을 혈통·언어·문화 공동체로 생각한다. 다시 말하면, 민족의 시민적이고 지

33) J. V. Stalin, *Marxism and the National Question*, in *Collected Works*, vol. 2 (Moscow: 1952-55), p. 307. 스탈린은 여기서 언급된 민족을 구분하는 여러 요소 외에 공동의 경제생활을 포함시킨다. 스탈린에 의하면 민족은 봉건주의가 소멸하고 자본주의가 형성된 시기에 근대 민족국가의 수립과 함께 나타난 현상이다.



역적인 개념은 민족 및 국적을 공동의 문화, 공통의 법과 지역적 시민권으로 여기는 반면에 민족의 인종적 개념은 그 구성원의 가계나 혈통에 초점을 맞춘다.<sup>34)</sup>

민족주의는 다른 민족의 군사적·경제적 침략 및 정치적 탄압에 대항하여 민족의 안보와 권익을 보호하려는 운동에 사람들의 참여를 동원하기 위하여 민족감정에 호소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근대 민족주의는 봉건제도가 쇠퇴하고 자본주의가 형성되는 시기에 근대 민족국가들의 등장과 함께 나타났다는 것이 정설이다. 시민권과 영토에 바탕을 둔 국적과 민족의 개념은 서방세계에서 우세했고 인종과 혈통이나 가계를 기초로 하는 민족주의는 동유럽과 기타 지역에서 유행했다. 인종적 민족주의는 이미 존재하는 인종적 유대에서 국가를 건설하기 때문에 서유럽에서처럼 시민국가의 탄생을 혁명을 유발함이 없이도 국가를 건설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고 정치적·경제적 혼란의 극심한 과도기에 제도의 공백이 생길 때 자발적으로 나타난다.<sup>35)</sup> 반면에 시민적 민족주의는 잘 제도화된 민주주의에서 나타난다. 동등하고 보편적인 시민권에 바탕을 둔 민족주의는 시민들에게 자신들의 견해를 표현을 허용하는 효과적인 제도일 뿐만 아니라 그러한 권리를 보장할 법체계에 의존한다. 대조적으로 인종적 민족주의는 제도가 아니라 문화에 의존한다. 인종적 민족주의는 제도가 붕괴하고 기존의 제도들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채워주지 못하고 만족스러운 대안이 이용될 수 없을 때 지배하게 된다.

오늘날 민족주의는 기존의 국가가 붕괴되어 민족 집단의 경제성장과 국가안보의 목표를 수행하지 못하는 과도기에 효과적인 새로운 국가의 건설이 요청되는 곳에서 비등하고 있다. 이러한 곳에서의 정치, 경제, 사회의 불안으로 야기되는 문제들은 민족주의를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민족주의는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민족간의 증오심에 기인하지 않는다. 민족주의는 주로 현대의 현상이며 민족분규 및 갈등의 강도는 변하는 사회적 정치적 조건들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sup>36)</sup> 인종적 민족주의는 소련이 붕괴된 이후 정치적·경제적 혼란과 함께 대두되었다. 구 소련 시절에는 소련시민이라는 태두리 안에서 여러 민족들이 동등한 정치적, 법적, 경제적 권리를 누릴 수 있었고 공산주의 이념과 공산당을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

34) 민족의 인종적·시민적 개념에 관해서는 다음 문헌을 참조함: Liah Greenfeld, *Nationalism: Five Roads to Modernit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92); Anthony Smith, *The Ethnic Origins of Nations* (London: Basil Blackwell, 1986), pp. 21-46.

35) Anthony D. Smith, "The Ethnic Sources of Nationalism," *Survival*, vol. 35, no. 1 (Spring 1993), p. 55.

36) Jack Snyder, "Nationalism and the Crisis of the Post-Soviet State," *Survival*, vol. 35, no. 1 (Spring 1993), p. 12.

에 민족간의 갈등이 통제되고 억제될 수 있었다.<sup>37)</sup> 그러나 소련이 해체된 이후 다민족을 묶는 소련시민의 개념이나 세도가 붕괴되자 민족공화국에서 문화적·혈통적, 언어적 유대불 기준으로 하는 인종적 민족주의가 대두되어 민족간의 갈등이 심화되었다.

시민적 민족주의는 그들 자신의 인종적 정체성을 선호하는 다른 집단과 긴장을 야기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민족분규는 진짜 시민 민족주의 하에서 더 수월하게 해결될 수 있다. 여기서 진짜 시민 민족주의는 혈통이나 종교의 배성에 상관없이 규정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평등한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권리와 의무가 부여되는 사회를 의미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소수민족에게 더 수월한 융화, 정치적 평등 그리고 문화적 자치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인종적 민족주의는 인종간 융화에 불평등과 큰 장애가 된다.<sup>38)</sup>

오늘날 구 소련지역의 민족주의와 인종분규는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문화적 적대감에서 기인하지 않았다. 민족 간에 잠재적인 중요성이 존재했지만 그것은 변하고 있는 환경이 민족적인 대중동원의 필요성을 증대시킬 때만 정치에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했다. 구 소련 구성공화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강경 민족주의와 민족분규는 국가가 국민들을 압박하는 군사적·경제적 위협에 대처하지 못할 때, 증가된 정치참여를 다룰 효과적인 도구나 세도를 개발하지 못할 때 생긴다. 강경 민족주의는 한 집단의 경제와 안보문제를 다루거나 기존 국가의 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37) Marx와 Engels는 민족의 존재를 부인했다. 그들은 노동자에게는 조국이 없으며 국경을 초월한 노동자 간의 유대를 강조하는 proletarian internationalism을 주장했다. 그들에 의하면 자본가들이 그들의 착취에 대한 노동자들의 원한이나 적개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만들어 낸 개념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자본가들의 집결위원회인 국가가 프롤레타리아의 혁명에 의해 타도되어 사회주의가 건설되면 국가와 함께 민족은 사라진다. 레닌은 볼셰비키 혁명 초기에는 새로 전제제체와의 혁명투쟁에서 러시아 제국주의 소수 민족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민족자결권을 제정하여 소수 민족의 정치적·문화적 자치권을 보장하는 소비에트 연방을 창립했다. 그는 민족주의의 가치를 믿었다기 보다는 사회주의가 확립되면 민족의 구분이나 특징은 궁극적으로 사라질 것이라고 믿었다. 레닌의 후계자들, 즉 스탈린, 흐루시초프, 브레즈네프는 민족주의를 억제하기 위하여 언어와 문화의 러시아화 동화정책을 실시했다. Marx의 민족주의의 이론과 구 소련의 민족정책에 관해서는 다음 문헌을 참조: W. Connor, *The National Question in Marxist-Leninist Theory and Strateg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4); Graham Smith, ed., *The Nationalities Question in the Soviet Union* (New York: Longman Inc., 1990), pp. 1-17; Gerhard Simon, *Nationalism and Policy toward the Nationalities in the Soviet Union*, tr. by Karen Forster and Oswald Forster (San Francisco: Westview Press, 1991).

38) Ibid., p. 20.

시 집단행동을 조직할 국가의 건설을 목표로 하는 대중운동이다. 공격적인 민족주의는 선전수단인 대중매체가 독점되어 있어서 민족주의자들의 선동에 효과적인 도전을 할 수가 없는 경우, 그리고 공격적인 외교정책에 편협한 관심을 가지는 집단이 민족주의 연합집단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에 생긴다.<sup>39)</sup>

국제사회의 통일된 외교정책은 강경 민족주의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경제원조나 제재는 압력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라트비아와 에스토니아는 인종적으로 편향된 시민권 기준을 채택하면 경제적 제재를 위협받을 수 있고, 러시아는 군사적인 수단으로 분쟁을 해결하려는 시도는 서방과의 경제관계를 파괴할 수 있다고 경고받을 수 있다.<sup>40)</sup> 그렇지 않을 경우, 러시아 정부가 서방과의 협조나 합의로 얻을 것이 없고 서방으로부터의 불신임으로 잃을 것이 없다고 결론을 내릴 때 러시아 밖의 러시아인들의 문제를 군사력에 의존하려는 유혹에 빠질 수 있다. 비러시아 지역에 거주하는 러시아인들의 권익과 안위를 보호하기 위한 군사행동을 포함한 강력한 조치와 함께 러시아의 영토와 영향력을 구 소련 지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블라지미르 지리노브스끼이가 이끄는 러시아 자유민주당이 1993년 12월 13일 실시된 총선에서 정당 별 투표에서 가장 많은 투표를 받았다. 지리노프스끼이의 주장은 소련이 해체된 이후 굴욕감을 느낄 정도로 자존심의 손상을 입었던 러시아인들을 위로해 주었다. 지리노프스끼이의 부상은 고조된 소수민족들의 민족주의에 대한 러시아인들의 반응의 표시로 해석될 수도 있다.

시민적 민족주의는 시장경제와 서구식 국가로 전환하려는 엘친의 전략과 인종적 민족주의가 국경 안팎의 러시아인들의 반발을 자극할 것을 염려하는 우크라이나와 까자흐 공화국의 정치지도자들의 전략에 적합하다. 그러나 러시아어를 말하는 사람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에서 그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것은 에스토니아인과 라트비아인들의 지배적 위치를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인종적 민족주의를 채택할 유혹에 빠지기 쉽다.

시민적 민족주의가 확립되기 위해서는 안정된 민주적인 정치체제와 시장경제체제가 전제되어야 한다. 법 앞에서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고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직업을 얻거나 부를 축적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성공적인 시장경제로의 전환과 경제의 개선은 민족분규를 완화시킬 것이다. 반대로 경제개혁의 실패는 인종 민족주의적인 반응을 자극할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경제개혁이 성공하기

39) Ibid, p. 21.

40) Ibid.

위해서는 인종 민족주의가 시민 민족주의로 대체되어야 한다. 확립된 시민 민족주의하에서 한 나라의 소수 민족은 다수 민족과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다. 따라서 고급기술을 가진 소수 민족이 다수 민족의 횡포나 탄압을 피해서 이주하지 않고 정착함으로써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구 소련의 비러시아 지역에는 정치 불안과 경제난으로 다수 민족의 이익을 중시하는 인종 민족주의가 대두되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부족한 주택, 한정된 취업기회와 부족한 물자를 차지하기 위한 가열된 경쟁 속에서 소수 민족의 권익을 희생시키면서 다수 민족의 권익을 확대하려는 민족주의가 고조되고 있다. 이런 탄압과 차별을 피하여 소수 민족들은 보다 안정된 공화국으로 이주하고 있다. 이러한 소수민족에는 러시아계 주민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들은 구 소련 시절에 고학력·고기술 소지자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타 민족보다 높은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누릴 수 있었다. 새로 독립한 주권 공화국에서 소수 민족으로 전락한 러시아계 주민들은 탄압과 차별을 피하여 보다 안전한 공화국, 특히 러시아연방으로 대량으로 이주하고 있다. 그들이 이주한 곳도 정치 불안과 경제난에서 전의 거주지보다 별로 나을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주를 받아 들인 공화국이나 러시아 정부의 사회적·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다.<sup>41)</sup>

경제개혁의 성공으로 경제난이 개선되어 주택, 취업, 충분한 생필품과 같은 기본 생활여건이 개선될 때 민족 간의 갈등이 완화되고 인종적 민족주의는 시민적 민족주의로 대체될 수 있다. 따라서 경제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고학력·고기술의 인력의 다수를 차지하는 러시아계 주민과 다른 소수 민족의 유출을 막고 안심하고 경제의 각 분야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 소련의 비러시아 공화국의 정치지도자들과 다수 민족들은 인종적 민족주의의 대두가 그들이 바라는 경제개혁의 성공에 방해가 된다는 것을 인식하여 민족간의 갈등을 완화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구 소련 구성공화국의 개개의 노력만으로는 불충분하다. 민족분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독립국가간의 협조와 조정이 필요하다. 기존의 CIS체제를 안보·군사문제를 논의하는 기구에서 경제공동체로 발전시킬 수 있다면, 그것은 민족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다.<sup>42)</sup> 구 소련 구성공화국들이 경제적 이유로 자진해서 CIS를

41) 비러시아 지역에서 이주해 온 구 소련의 러시아인들은 심각한 러시아의 주택난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이들의 정착을 도와줄 사회보장 재원의 부족으로 골머리를 안고 있으며 생활방식의 차이로 러시아 주민들과 갈등이 있다는 보도가 있다. 비러시아 공화국에서 이주해 오는 러시아인들에 관한 논쟁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조: *Izvestiia*, August 11, 1993, p. 3; *Nezavisimaja gazeta*, July 31, p. 5.

경제공동체로 발전시킬 경우 CIS 역내에 상품과 노동인구가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적이나 민족의 중요성이 약해지고 편협한 인종적 민족주의는 사라지며 시민적 민족주의가 대두될 것이다. 실제로 러시아 정부는 1993년 12월 13일 총선에서 블라디미르 지리노프스끼이가 이끄는 극우 민족주의자들의 집결체인 자유민주당이 국가두마에서 제2당으로 부상한 이후 구 소련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CIS를 강력한 통제체제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세를 얻고 있다. 이러한 러시아의 의도가 과거 구 소련의 제국주의 정책의 부활로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민족 간의 갈등이나 분규의 완화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CIS는 정치적·군사적으로 느슨한 경제동맹체로의 발전이 바람직하다.<sup>42)</sup>

## V. 결론: 러시아연방의 민족정책에 대한 전망

구 소련의 해체는 구 소련의 비러시아 지역에서 민족간의 분규나 갈등을 심화시켰다. 구 소련 시절 '소련시민'이라는 공통의 신분하에서 공적으로 법적으로 동등한 자격과 권리를 누릴 수 있었던 소수 민족들은 다수 민족의 차별과 탄압으로부터 자신들의 권리와 문화를 지키기 위하여 정치적·문화적 자치권의 획득을 위해 투쟁하거나 분리독립을 위한 무장투쟁운동을 벌여왔다. 따라서 구 소련연방의 해체로 독립한 공화국들은 또다시 이분삼분될 위기에 처해 있다. 러시아연방 밖의 비러시아 지역에 산재해 있는 러시아계 주민들 역시 구 소련 시절에 누렸던 특권이나 다른 민족에 상대적인 우월한 위치를 상실하고 차별받는 소수민족의 위치로 전락했다. 그들은 그들의 안위와 권익을 침해받게 되었다. 이렇게 되자 비러시아 지역에 구 소련 시절부터 주둔해 왔던 러시아 군대가 동족인 러시아계 주민들에게 무기를 공급했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연방의 보수 민족주의 세력들은 엘친정부에게 인근 공화국에 거주하는 러시아인들의 신분과 권익 보호를 위해 군사력 사용을 포함한 적극 개입을 촉구하게 이르렀다.

구 소련이 해체된 직후 비러시아 지역의 민족간 분규나 갈등에 대한 개입이 초래할 서방과의 관계악화 및 기대했던 경제원조 획득의 상실을 두려워 한 엘친은

42) CIS 회원국가들은 1993년 1월에 '독립국가연합헌장'(Commonwealth Charter)에, 그리고 동년 9월에는 '경제동맹'(Economic Union) 결성을 위한 협정에 서명했다.

43) CIS의 경제공동체로서의 발전추이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조: *RFL/RL Research Report*, January 7 and February 11, 1994.

인접 공화국의 민족분규에 개입하기를 꺼렸다. 러시아 정부가 러시아 국익과 동족인 러시아계 주민들의 권익보호 의무를 저버리고 있다는 보수 민족주의 세력들의 비판과 함께, 비러시아 지역의 민족문제에 관한 대책에 관한 논쟁이 각 정파가 제시하는 대외정책의 방향의 구도내에서 가열되었다. 엘친의 전·현직 각료들과 지지자들은 경제개혁의 성공을 위해서 절대로 필요한 경제원조의 제공자인 서방과의 선린관계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인접 공화국 내의 민족분규에 대한 제한된 개입을 주장하는 데 반하여, 보수 민족주의 세력들은 서방과의 관계 악화를 희생하면서까지 비러시아 지역의 러시아계 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군사력을 사용하는 적극개입 뿐만 아니라 구 소련의 부활을 주장한다.

이러한 급진 개혁주의자들과 보수 민족주의자들의 대안의 약점을 보완한 유라시아적인 민족정책이 온건중도 개혁주의자들에 의해 제기되었다. 그들은 서방과의 우호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인접외국과의 선린관계를 회복하고 더 나아가서는 인접 공화국과 국경을 접하는 아시아·태평양 국가와의 친밀한 관계를 맺는 차원에서 민족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한다. 유라시아적인 대안은 시민적 민족주의 개념을 바탕으로 한다. 민족간의 갈등이나 마찰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경제성장을 이룩하는 데는 시민적 민족주의가 확립되어야 한다. 시민적 민족주의하에서 혈통관계나 종교에 상관없이 법 앞에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을 때 소수민족의 고학력·과학기술 인력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기를 포기하고 안심하고 정착하여 경제발전 에 기여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시민적 민족주의 확립에 유리한 외부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그것은 CIS를 EU의 전신인 EEC와 같은 경제공동체로 발전시켜 CIS 역내에서 인력과 물자가 수요공급에 따라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을 때 시민적 민족주의 토대는 강화될 것이다. 과거 구 소련에서 구성공화국의 경제는 지역별 산업 분업화 원칙에 입각하여 개발되었기 때문에 상호의존도가 높다. 따라서 공화국의 상호협력 없이는 어느 공화국도 경제성장이 쉽지 않다. 소련의 해체 이후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각 공화국의 상호협력을 수월하게 하는, 강압에 의하지 않은 자발적인 경제공동체 형성의 필요성이 절감되고 있다. 경제공동체의 성립을 위한 공화국간의 협정이 최근에 이루어졌다.

보혁대결로 인한 정치적·헌법상의 위기를 타개하는 과정 및 개혁의 속도와 성과는 러시아연방의 민족정책과 그 대안의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예상된다. 현 러시아집권층은 여러 갈래로 쪼개진 러시아 사회를 통합할 공감을 얻는 이념이나 국익의 개념을 상안하려고 고심했다. 엘친 정부는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 중심제 신 헌법을 채택하고 새로운 양원제 의회를 구성함으로써 정치적·사

회적 분열을 치유하려고 시도했다. 진보적인 개혁파 정치인들이 의회의 다수 의석을 차지할 경우 구 소련의 붕괴를 기정사실화한 토대위에 친서방적이고 제한적인 외교정책과 함께 CIS의 수권독립국가와 그곳의 러시아인들에 대한 온건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러시아연방내의 소수민족의 자치·자결권을 존중하는 민족정책이 계속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리고 급진경제개혁이 가시적 성과를 보일 경우 구 소련 공화국에서 피신해 오는 러시아인들을 수용함으로써 야기되는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엘친의 기존의 민족정책의 좋은 성과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새로 구성된 의회에서 급진개혁파는 다수 의석을 차지하는 데 실패했다. 1993년 12월 13일 총선에서 신 헌법은 채택되었지만 예상 밖에 보수 민족주의 정치세력이 의회의 다수 의석을 차지했다. 따라서 지금 현재는 보수세력의 민족정책안이 세를 얻고 있다. 총선 이후 러시아 정부는 구 소련지역에 영향력을 확대하는 인접외국 정책에 치중할 뿐만 아니라 비러시아 지역의 러시아계 주민의 신변과 권익을 보호하려는 적극적인 정책으로 선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시장경제로의 급격한 전환정책은 실패한 것으로 판정되고 있으며 경제사정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더욱 가중되는 정치·경제혼란 속에서 보수세력의 민족주의적이고 애국적인 외교노선과 민족정책에 대한 일반 대중의 지지도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구 소련 구성공화국간의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정책대안이 호응을 얻고 있다. 따라서 엘친 정부는 러시아의 다른 공화국에 거주하는 러시아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경한 조치를 취하고 관련 공화국에 압력을 가할 것이며, 러시아 연방내의 분리독립을 추진하는 자치 공화국과 자치, 자결권의 확대를 갈구하는 지역·지방정부의 요구에 강경하게 대응할 것 같다.

## 참고문헌

- Bradshaw, Michael J. "Siberia Poses a Challenge to Russian Federalism," *Survival*, vol. 35, no. 1 (Spring 1993).
- Bremner, Ian. "Ethnic Issues in Crimea," *RFE/RL Research Report*, vol. 1, no. 41 (October 16 1992).
- Crow, Suzanne. "Russia Prepares to Take a Hard Line on Near Abroad," *RFE/RL Research Report*, vol. 1, no. 32 (August 14, 1992).
- Gellner, E. *Nations and Nationalism*. Oxford: Basil Blackwell, 1983.
- Hajda, Lubomyr and Mark Beissinger, eds. *The Nationalities Factor in Soviet Politics and Society*. San Francisco: Westview Press, 1990.
- Komsomolskaia pravda*, May 27, 1992; October 21, 1993, p. 1.
- Krickus, Richard J. "Latvia's Russian Question," *RFE/RL Research Report*, vol. 2, no. 1 (April 30, 1993).
- Moskovskie novosti*, September 27, 1992, pp. 6-7.
- Motyl, Alexander, ed. *Thinking Theoretically about Soviet Nationalitie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2.
- Nahaylo, Bohdan and Victor Swoboda. *Soviet Disunion: A History of the Nationalities Problem in the USSR*. New York: The Free Press, 1990.
- Nezavisimaia gazeta*, April 29, 1993, p. 3; September 26, 1993, pp. 1, 3.
- RFE/RL Research Report*, vol. 1, no. 50 (December 18, 1992).
- Rossiiskaia gazeta*, October 21, 1992, p. 7.
- Russia, Vera. "Westernizers Continue to Challenge National Patriots," *RFE/RL Research Report*, vol. 1, no. 49 (December 11, 1992).
- Simon, Gerhard. *Nationalism and Policy Toward the Nationalities in the Soviet Union*. Tr. by Karen Forster and Oswald Forster. San Francisco: Westview Press, 1991.
- Smith, Anthony D. "The Ethnic Sources of Nationalism," *Survival*, vol. 35, no. 1 (Spring 1993).
- Smith, Graham, ed. *The Nationalities Question in the Soviet Unions*. New York: Longman, 1990.



- Snyder, Jack. "Nationalism and the Crisis of the Post-Soviet State," *Survival*, vol. 35, no. 1 (Spring 1993).
- Socor, Vladimir. "Moldova's Dniestr Ulcer," *RFE/RL Research Report*, vol. 2, no. 1 (January 1, 1993).
- \_\_\_\_\_. "Russia's Fourteenth Army and the Insurgency in Eastern Moldova," *RFE/RL Research Report*, vol. 1, no. 33 (August 21, 1992).
- Solchnyk, Roman. "The Crimean Imbrolio: Kiev and Simferopol," *RFE/RL Research Report*, vol. 2, no. 18 (April 30, 1993).
- \_\_\_\_\_. *Survival*, vol. 35, no. 1 (Spring 1993).
- Torbakov, Igor. "The Statists and the Ideology of Russian Imperial Nationalism," *RFE/RL Research Report*, vol. 1, no. 49 (December 11, 1992).
- Welsh, David. "Domestic Politics and Ethnic Conflict," *Survival*, vol. 35, no. 1 (Spring 1993).

## National Problems in Countries of the Former Soviet Union and Russia's Policy toward "Near Abroad"

Moon Myong-Sik

The breakup of the Soviet Union has contributed to the escalation of interethnic conflicts and full scale war between nations in the countries of the former Soviet Union. The ethnic minorities, who enjoyed official and legal equality and rights under the common status, the Soviet Citizen in the Soviet era, have struggled for the secessionist and independent movement to protect themselves from repression and discrimination and keep their political and cultural autonomy. Accordingly, newly independent states of the former Soviet Union might be divided into two or three parts.

The 25 million Russians who lived outside Russia also lost their privileged status under the Soviet rule and suddenly became second class citizens in these newly independent states. As other ethnic minorities have done, Russians in the former Soviet Union republics have suffered from violations of civil, political, economic, and human rights. They have been prevented from obtaining jobs, housing, and social security benefits. Consequently, politicized Russian officers of the Russian troops that remained stationed in the Soviet era, have helped armed struggle of ethnic Russians against national majorities by providing Russians with weapons.

Policies and alternatives to resolve ethnic problems in countries of the former Soviet Union were debated within the boundary of direction or doctrine of foreign policy. National-patriots criticized that Russian government renounced the obligation to defend interests and human rights of Russians in "near abroad." And they urged Yeltsin to take aggressive steps, including military intervention, to defend human rights of ethnic Russians outside Russia. Moreover, they also argue to maximize Russia's

influence on the countries of the former Soviet Union. By contrast, Yeltsin feared that Russia's involvement in interethnic conflicts in "near abroad" could cause the tension with Western countries and thus lose the economic aids from the West which Yeltsin hoped to obtain. Thus, he hesitated to be involved in the resolution of ethnic problems in the former Soviet republics. Yeltsin's supporters contend limited involvement in interethnic conflicts that would contribute to keeping the good relationship with Western countries. On the other hand, moderate-center parties propose the Eurasian policy that would replace the alternatives of radical democrats and conservative nationalists. Their policy toward national problems presuppose the maintenance of good relationship with the West, the former Soviet republics, and Asian-Pacific states. The Eurasian national policy is to be based on the conception of civil nationalism.

National policies discussed above have strength and weakness. The better resolution of national problems require reinterpreting conceptions like nations and nationalism in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ic, and cultural environments following new world order and globalization. Ethnic conceptions of the nation conceives of the nation as a genealogical and vernacular cultural community, whereas civic and territorial conceptions of the nation regard it as a community of shared culture, common laws and territorial citizenship. The establishment of 'civil nationalism' helps economic growth that would allay interethnic conflicts. When all citizens would not be discriminated by nationalities and ethnicity and could have equal rights under civil nationalism, ethnic minorities, skilled laborer of high education and high-tech would renounce to immigrate to other safer countries and determine to settle in their present residence. Accordingly, they would contribute to the economic development of their host countries.

Finally, the transformation of CIS into an economic community could help to form the exterior circumstances appropriate for the establishment of civil nationalism. The free movement of labor and goods within the bloc of CIS would contribute to strengthening the foundation of civil nationalism.